



2026. 9. 3 (목)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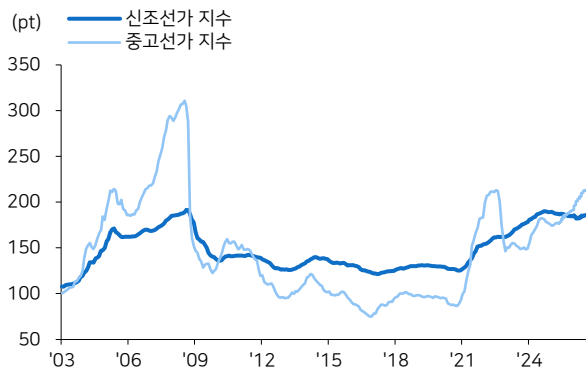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6.3p (+0.6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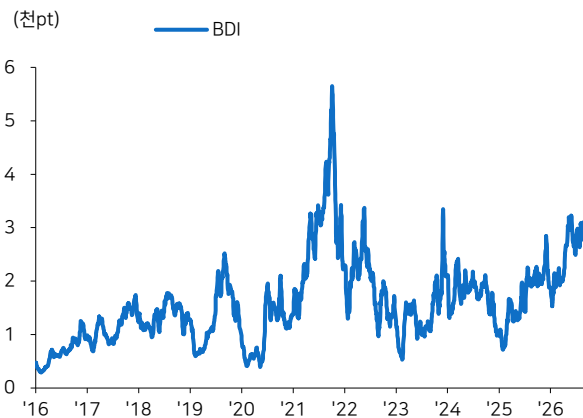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30.0달러 (+9.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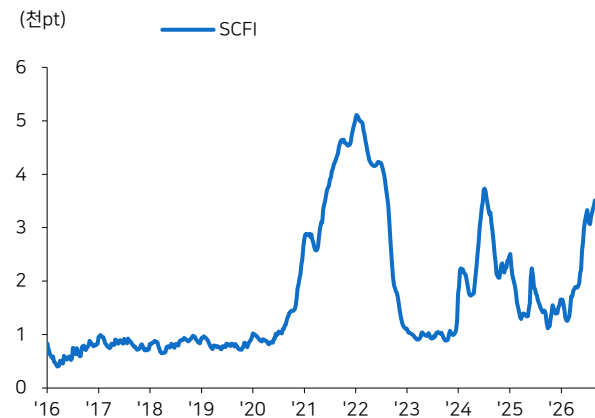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3,175.0p (-11.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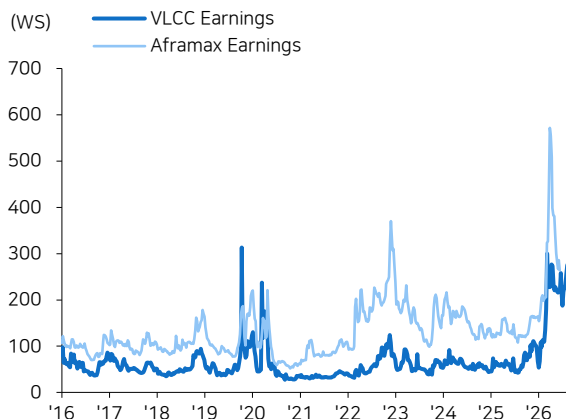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509.5 (+99.9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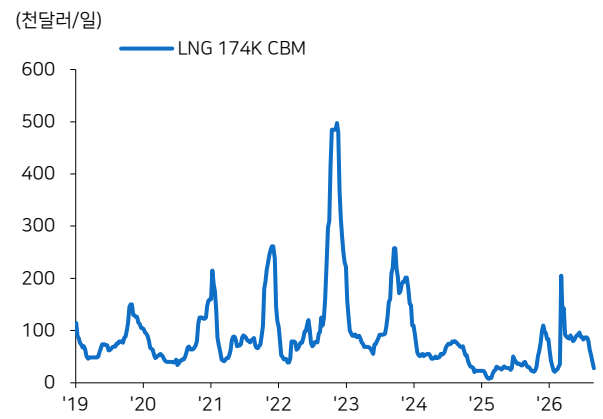
VLCC Spot Rate

401.7WS (-2.3p WoW)



LNG Spot 운임

28.0천달러 (-14.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화, 美 필리조전소 확장 본격 착수...기존 부지 활용 (뉴스 1)

<https://zrr.kr/iY1Xif>

한화그룹이 미국 필라델피아 한화필리조전소 확장 사업에 착수하며, 대규모 신규 부지 개발에 앞서 기존 부지 내 생산시설 확장·개선을 통해 병목 공정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추진한다고 보도됨. 2024년 발표한 50억달러(약 7조원) 투자 계획에 따라 독 2기, 안벽 3기, 약 120,000평 규모 블록 생산기지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연간 건조 능력을 1~1.5척에서 최대 20척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전해짐. 필리조전소의 올해 설비투자 규모는 5,409억원이며, 미국 현지 설계 인력 채용과 추가 생산·물류 부지 확보 협의도 병행 중이라고 알려짐.

HD현대중공업, LCO₂운반선 핵심기술로 '장영실상' 수상 (뉴시스)

<https://zrr.kr/exolbr>

HD현대중공업이 액화 이산화탄소(LCO₂) 운반선용 저압 화물 시스템 기술로 제35주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고 보도됨. 이 기술은 LCO₂를 영하 50℃·7기압의 초저온·저압 상태로 안정적으로 운송해 화물탱크를 대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최대인 22,000㎥급 LCO₂ 운반선을 상용화한다고 전해짐. HD현대중공업은 CCUS 시장 확대에 대응해 대형 LCO₂ 운반선 핵심 기술을 앞세워 친환경·탈탄소 선박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이라고 알려짐.

"美, 해군 차기 호위함 후보로 한국 충남급 검토... 日-튀르키예와 3 파전" (조선일보)

<https://zrr.kr/gdzXWO>

미 해군이 해외 건조 대상 수상 전투함 후보로 HD현대중공업의 충남급(울산급 배치-III) 호위함을 포함해 한국·일본·튀르키예의 호위함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됨. 이번 사업은 트럼프 행정부의 '핀란드 모델'에 따라 미국에 투자한 해외 조선사의 본국에서 해군 함정을 최대 2척까지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기반한다고 전해짐. 충남급은 HD현대중공업이 선도함을 건조한 최신예 3,600톤급 호위함으로, 미 해군은 올해 국내 조선소 실사와 정보요청(RFI)을 진행하며 해외 건조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짐.

Yang Ming inks order for six LNG dual-fuelled container ships at Hanwha (TradeWinds)

<https://zrr.kr/qbCcvh>

Yang Ming이 한화오션과 LNG 이중연료 추진 13,000TEU급 컨테이너선 6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으며, 선박은 2028~2029년 순차 인도될 예정으로 보도됨. 신조선은 암모니아 레디 설계와 Type B LNG 연료탱크,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지능형 선박관리 시스템 등 친환경·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했다고 전해짐. Yang Ming은 척당 1억8,500만~2억400만달러를 투입해 차세대 선대를 확충하며, 2030년까지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18척을 포함한 신조선 24척을 확보할 계획으로 알려짐.

변광용 거제시장 "삼성중공업-한화오션, 부산지역 설계센터 확대 재검토해야" (한국경제)

<https://zrr.kr/Hji2u5>

거제시가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부산 설계센터 확대 및 설계인력 추가 채용 계획에 대해 지역 고용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다고 보도됨. 양사는 현재 약 2,000명의 설계인력을 거제에서 운영 중이며, 삼성중공업은 2030년까지 130여명, 한화오션은 2029년까지 400여 명을 부산에서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거제시는 설계기능의 역외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현장 직영인력 신규 채용과 정주여건 개선 등 상생 방안을 요구했으며, 이재용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에게 공식 면담도 요청했다고 알려짐.

Middle East LNG carriers and cargoes hemmed in by escalating US-Iran conflict (TradeWinds)

<https://zrr.kr/m1QSv1>

중동 분쟁 격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LNG 수출이 사실상 중단됐으며, 카타르 Ras Laffan 터미널 인근에는 적재를 마친 LNG 선 11척이 대기하며 부유식 저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됨. 지난 6개월간 카타르 LNG 수출은 18카고에 그쳐 전년 동기 509카고 대비 급감했으며, 피격된 LNG선들의 화물은 선박 간 환적(STS)을 통해 인도와 파키스탄 등으로 운송됐다고 전해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LNG선들이 AIS를 끄고 운항하거나 해협 밖에서 대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아시아 수입국들은 중동산 LNG 공급 안정성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